



벌써 한 해를 마감하며 주의 낮아지심을 묵상해야 하는 한 해 같습니다. 한 친구 목사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대본에 캐스팅된 주인공으로 아이티 땅 가운데 살아가길 소원하며, 여러 교회와 성도님들, 또한 살아가는 현장에서 주님의 주인공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1. 아이티 소식

폭동 이후 그간 계속되는 데모 일정 공시는 부도수표를 난발하듯 아무런 어려움없이 무사히 넘어가서 정말 다행입니다. 데모의 원인인 원유기금의 문제로 갈수록 전기 사정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외부로 보도되지 않는 최근 인권에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인(死因)도 모르는 많은 시체가 의회당 근처에서 발견되어 정부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만 아직도 아무런 규명도, 결과 보고도 없습니다. 한 소문에는 경찰권과 갱들의 담합을 통한 데모 주모자 색출이라는 등, 몇몇 추측만 난무하고 있고, 최근 군대가 다시 창설되면서 경찰권에 대한 비판이 늘며 그 옛날 군부독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설까지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1달러당 75굴드까지 올랐고 하루가 다르게 환율이 변동되고 있으며 은행에서는 환율을 100굴드까지 올린다는 소문도 들려와 서민들의 주머니 경제들이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연말까지 겹치면서 부촌의 많은 곳에서는 절도 사건들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치한 레오간 지역도 절도, 유괴 등이 잦아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저희 교회도 교회당 안에 있던 스피커를 도둑맞아 담을 보수하고 성탄절 행사를 위해 스피커를 다시 구입하는 등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는지 아이티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묻고 또 묻는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아이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비전교회 이야기

뉴욕 한빛 교회 단기선교팀의 방문으로 교회 내벽이 페인트칠이 되고, 성도들이 함께 교회당 외벽도 페인트칠

Jungwon LEE

3170 Airmans Dr. #2178-KPM, Ft. Pierce FL 34946-9131 USA

LG폰: +82-(0)70-7548-9010 / 아이티: +509-3786-6952/ -4865-9518



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간들을 보내면 교회당이 조금씩 모습들을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스피커 도둑으로 인해 내벽을 더 쌓는 일도 있었고, 정확조가 없는 화장실로 인해 모기와외의 전쟁도 있지만 이번 성탄절을 위한 주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같은 동료 선교사님을 통해, 또 다른 여러 손길들을 통해 채워 주시는 등, 많은 일들이 주의 섭리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교회가 지금은 교회당을 갖추게 되고 빛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도둑맞은 선물도 다시 채워지는 등 기적의 연속인데 왜 우리네 믿음은 자라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기적의 연속임에도 마치 청룡열차와 같이 아찔한 무엇인가를 바라는 우리네 인생을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 이번 12월 말에는 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소교리 문답을 어느 정도 공부해 해야, 그리고 이들의 삶을 통해 계속 검증되어야 하는 세례식이라 2번째 세례식 이후 2년 만에 어렵게 2명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2월 3일에는 매년 2월 첫 번째 주일에 드리는 비전교회 창립 예배 주일을 맞이해 헌당 예배도 함께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조금씩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 행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가족 이야기

큰 애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 덕분에 한국을 무사히 방문하였습니다. 검사결과는 너무 감사하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한국 방문을 통해 귀한 손길들을 만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학에 진학하여 1월부터 다니게 됩니다. 비록 자기가 원했던 학교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가 넘칩니다. 올해 아들의 부족한 학비도 한 장학기관에 신청해 두었던 장학금을 받게 되어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의 염려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부모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지만 아이들을 통해 또 도전을 받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됩니다. 평생 우리의 삶이 믿음을 배우고 또 배워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게 되니 어찌 우리 주 예수님이 사랑스럽지 않을 수 없는지요! 더욱 겸손하게 저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기도제목

- 1) 지상의 교회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안정되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잘 부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2) 아이티 행정부가 잘 구성되고 민생의 어려운 일들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3) 이브노 전도사가 이번 학기 신학교를 마치고 방학에 들어갑니다. 아직도 아이가 없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진 아이티 땅에서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아름다운 가정의 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4) 다영이의 대학 생활과 이삭이의 학업에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채워갈 수 있길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다영이가 이제 부모와 떨어져 대학 생활을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2018. 12. 11.

이정원, 정영숙, 다영, 이삭 드림

Jungwon LEE

3170 Airmans Dr. #2178-KPM, Ft. Pierce FL 34946-9131 USA

LG폰: +82-(0)70-7548-9010 / 아이티: +509-3786-6952/ -4865-9518